

사상체질에 따른 대변의 특징에 대한 임상적 검토

최재영* · 박성식*

Abstract

A Clinical Study of Stoo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Choi Jae-young*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was for studying the features of stoo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and to be helpful to make a diagnosis Sasang constitution. Us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ill be helpful to diagnose a Sasang constitution.

Methods : There were 504 patients(214 men and 290 women) who answered questionnaire and were diagnosed by the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 at constitutional clinic of Dongguk Bundang Oriental Hospital. Using the response of questionnaire and several statistical techniques, we tried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itution depending on its stool behaviors.

Results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questionnaire, the stool of Taeumin and Soyangin got, on the average, more scattered than the stool of Soeumin($p < 0.05$). In a view of defecation time, feeling after defecation and thickness of stool,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Sasang constitution.

Keywords : Sasang Constitution, Stool, Questionnaire, Homogeneity Test, Multiple Comparison

I. 緒 論

『東醫壽世保元』¹⁾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券』²⁾에는 각 체질에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리적 또는 병리적인 증상 즉 素證들이 기술

되어 있다. 사상의학에서는 汗, 大便, 小便, 睡眠 및 消化狀態 등의 素證이 체질과 체질병증을 진단하는데 기준이 되기도 하며, 또한 병증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지표로써 관찰된다³⁾. 素證의 특징에 대해서는 大便⁴⁾, 小便⁵⁾,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최재영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031-710-3723
E-mail) wodud9208@yahoo.co.kr

汗出^{6,7)}, 睡眠⁸⁾ 등에 대한 문헌적 연구가 있었고, 이 등⁹⁾은 汗·大便·小便에 대해 체액 배설의 관점에서 자율신경계와의 관련성을 고찰한 문헌연구가 진행된 바 있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素證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이에 저자는 임상적으로 체질 진단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방법을 이용하여 체질에 따른 땀, 대변, 소변, 수면 및 소화 등의 평소 양상을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대변의 특징에 관해서만 보고하고자 한다.

『東醫壽世保元』¹⁾에서 소양인은 大便善通을 完實無病의 조건으로 보았고, 表寒病에서 제시하고 있는 亡陰證은 설사를 대표 증후로 하였고, 裏熱病 중 胸膈熱證은 裏陽이 상승하지 못하고 鬱滯되어 熱化된 것으로 大便不通이 주요 증상이 된다. 소음인은 表病에서 胃家實의 大便不通過 裏病에서 少陰證, 太陰證의 설사를 기술하고 있고, 태음인의 경우 表病에서 胃脘寒證을 제시하면서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表病이 重한 것이라고 하였고, 裏病에서 燥熱病에 大便秘燥한 증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태양인의 경우 表病에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裏病에서는 反胃症에서 대변이 秘少하여 羊屎 같은 것은 難治라 하고 또한 대변의 좋은 양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券』²⁾의 素證을 논한 病變 第五統에서는 태양인과 소양인은 대소변이 滑利하면 좋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대소변이 滑利하면 좋지 않다고 하여 陽人과 陰人을 비교 설명하였고, 소음인에서 설사는 急하고 重한 것이지만, 소양인에서는 오래도록 설사해도 오히려 輕하다고 하는 등의 기술이 있었다. 위 문헌에서와 같이 대변의 관찰이 체질병증의 진단, 병의 有無 및 병의 예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변에 관한 문항의 설문지를 임상적으로 체질진단이 시행된 대상자들에

게 작성하게 하여 그 답변을 정리하고 체질별로 통계적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조사하여 중복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문항을 제시하여 추후 설문지를 만드는데 참고로 삼고자 하였다.

Ⅱ. 研究對象 및 方法

1. 研究대상

2002년 3월 14일부터 2002년 9월 5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초진으로 내원하여, 사상체질의학 전문의에 의해 체질 판단을 받은 후, 사상인 체질에 따른 한약을 20첩 이상 복용한 외래환자 중 설문지를 작성한 5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研究방법

1) 자료조사 방법

사상체질의학 전문의에 의해 체질진단을 시행한 대상자 504명에게 대변에 대한 설문을 작성하게 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체질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만든 차트를 이용하였고, 그 내용은 표 13과 같다.

2) 자료처리 및 통계

설문지의 대답을 모두 코드화 하여 전산 입력하였으며 진단된 체질을 함께 입력하고 비교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BMI 지수는 ANOVA test를 이용하고, 유의성 있는 경우 Scheffe 방법을 이용하여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대변에 관한 설문항목의 답변과 체질간의 비교는 Chi-square test를 하였다. 설문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Win10.0을 이용하였다.

Ⅲ. 研究結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성별·연령별 분포

80대까지이고 평균연령은 39.9세이며, 성별은 남자 214명(42.5%), 여자 290명(57.5%)이다(표 1). 대상자의 체질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1. 성별 연령별 분포.

	≤19세	20-39	40-59	≥60	total
남자	18 (3.6%)	100 (19.8%)	72 (14.3%)	24 (4.8%)	214 (42.5%)
여자	18 (3.6%)	130 (25.8%)	106 (21.0%)	36 (7.1%)	290 (57.5%)
total	36 (7.1%)	230 (45.6%)	178 (35.3%)	60 (11.9%)	504 (100.0%)

a) % of total

표 2. 체질별 분포.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total
148 (29.4%)	125 (24.8%)	223 (44.2%)	8 (1.6%)	504 (100.0%)

a) % of total

2) 체질별 비만정도 비교

BMI(Body mass index, 체중(kg)/키(m)²) 지수를 비만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체질과 BMI 지수를 비교한 결과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의 순서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질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BMI 지수에 따라서는 태음인≠소양인≠소음인=태양인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즉, 소음인과 태양인은 BMI 지수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체질과 BMI 지수

	태음인 (N=148)	소양인 (N=125)	소음인 (N=223)	태양인 (N=8)	total (N=504)
BMI 지수	25.85±2.70	23.11±2.63	20.65±2.39	19.96±2.26	22.78±3.37

a) Mean±S.D.

p<0.01

표 4. BMI 지수의 다중비교(Scheffe 방법을 이용)

(I) 체질	(J) 체질	Mean Difference (I-J)	Std. Error	Sig.
태음인	소양인	2.7375 [*]	0.3089	0.000
	소음인	5.1982 [*]	0.2696	0.000
	태양인	5.8853 [*]	0.9230	0.000
소양인	태음인	-2.7375 [*]	0.3089	0.000
	소음인	2.4607 [*]	0.2841	0.000
	태양인	3.1478 [*]	0.9274	0.010
소음인	태음인	-5.1982 [*]	0.2696	0.000
	소양인	-2.4607 [*]	0.2841	0.000
	태양인	0.6871	0.9150	0.905
태양인	태음인	-5.8853 [*]	0.9230	0.000
	소양인	-3.1478 [*]	0.9274	0.010
	소음인	-0.6871	0.9150	0.905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 설문지를 통한 체질별 대변의 특징 비교

1) 체질별 대변의 특징 비교

(1) 대변의 형태

'변이 묽은 편', '변이 된 편', '변모양을 갖춘 편'의 문항에서는 체질별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이 흩어지는 편'의 문항에서 태음인은 20.3%, 소양인은 18.4%가 응답한 반면 소음인은 9.9%가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체질별로 '변이 흩어지는 편'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p값이 0.015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체질간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중비교를 해 본 결과(즉,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해 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05, 소양

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23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6).

표 5. 체질별 대변 형태의 비교

문항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total	p-value	
대변 형태	변이 묶은 편	18 (12.2)	18 (14.4)	26 (11.7)	1 (12.5)	63 (12.5)	0.903
	변이 된 편	26 (17.6)	16 (12.8)	28 (12.6)	2 (25.0)	72 (14.3)	0.420
	변이 흘러지는 편	30 (20.3)	23 (18.4)	22 (9.9)	0 (0.0)	75 (14.9)	0.015*
	변모양을 갖춘 편	20 (13.5)	25 (20.0)	53 (23.8)	3 (37.5)	101 (20.0)	0.060

a) % within 체질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표 6. '변이 흘러지는 편'의 문항에 대한 다중 비교

(I) 체질	(J) 체질	p-value
태음인	소양인	0.697
태음인	소음인	0.005*
태음인	태양인	0.157
소양인	소음인	0.023*
소양인	태양인	0.182
소음인	태양인	0.350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 배변 시간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7).

표 7. 체질별 배변 시간의 비교

문항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total	p-value	
배변 시간	시간이 짧은 편	80 (62.5)	66 (64.1)	145 (71.8)	5 (100.0)	296 (67.6)	0.106
	시간이 긴 편	48 (37.5)	37 (35.9)	57 (28.2)	0 (0.0)	142 (32.4)	
	total	128 (100.0)	103 (100.0)	202 (100.0)	5 (100.0)	438 (100.0)	

a) % within 체질

(3) 배변 후의 느낌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해 '뒤가 무직한 느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8).

표 8. 체질별 배변 후의 느낌의 비교

문항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total	p-value	
배변 후의 느낌	뒤가 무직한 느낌	60 (42.3)	39 (33.3)	68 (32.9)	2 (25.0)	169 (35.7)	0.253
	시원한 편	82 (57.7)	78 (66.7)	139 (67.1)	6 (75.0)	305 (64.3)	
	total	142 (100.0)	117 (100.0)	207 (100.0)	8 (100.0)	474 (100.0)	

a) % within 체질

(4) 대변의 굵기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해 대변이 '가늘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9).

표 9. 체질별 대변 굵기의 비교

문항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total	p-value	
대변 굵기	굵다	35 (34.0)	33 (40.2)	53 (39.0)	3 (42.9)	124 (37.8)	0.801
	가늘다	68 (66.0)	49 (59.8)	83 (61.0)	4 (57.1)	204 (62.2)	
	total	103 (100.0)	82 (100.0)	136 (100.0)	7 (100.0)	328 (100.0)	

a) % within 체질

(5) 대변의 병리적 특징

체질별로 대변의 병리적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③번 문항의 p 값이 0.038, ⑤번 문항이 0.025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표 10), 각 체질간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③번 문항의 답변을 다중비교를 해 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의 p 값이 0.007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1).

⑤번 문항의 답변을 다중비교를 해 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의 p 값이 0.011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2).

표 10. 체질별 대변의 병리적 특징

문항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total	p-value
①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가 나면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 (찬 것, 기름진 것을 먹으면 심하다)	44 (29.7)	44 (35.2)	81 (36.3)	1 (12.5)	170 (33.7)	0.325
② 대변이 굳어지면 건강상태가 나빠지며 변비가 생기면 속에서 열이 많이 난다. 이때 차라리 설사를 시키는 것이 편하다.	19 (12.8)	25 (20.0)	43 (19.3)	1 (12.5)	88 (17.5)	0.333
③ 대변이 보통이거나 약간 무른 편인데 기분이 나쁘거나 매운 것을 먹으면 설사가 나고 이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	9 (6.1)	15 (12.0)	34 (15.2)	0 (0.0)	58 (11.5)	0.038*
④ 대변이 평소 무르거나 설사가 잘 나는 편이나, 설사 해도 몸이 차워지거나 건강의 급격한 악화는 없다.	36 (24.3)	24 (19.2)	42 (18.8)	3 (37.5)	105 (20.8)	0.364
⑤ 대변이 평소 무른 것이 된 것보다 좋고 굵기가 굵고 크면서 많이 나오면 건강이 좋다.	36 (24.3)	19 (15.2)	31 (13.9)	3 (37.5)	89 (17.7)	0.025*

a) % within 체질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표 11. ③ 번 문항의 다중비교

(I) 체질	(J) 체질	p-value
태음인	소양인	0.085
태음인	소음인	0.007*
태음인	태양인	0.472
소양인	소음인	0.403
소양인	태양인	0.298
소음인	태양인	0.232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표 12. ⑤번 문항의 다중비교

(I) 체질	(J) 체질	p-value
태음인	소양인	0.061
태음인	소음인	0.011*
태음인	태양인	0.402
소양인	소음인	0.740
소양인	태양인	0.100
소음인	태양인	0.064

* The mean difference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 설문간의 내적 일치도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평가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표 13).

설문의 alpha 값이 -0.6595로 나타났고, 구성 설문 항목 열다섯 문항 중 대변 형태에서

'변이 묶은 편', '변이 흩어지는 편', 대변 굵기에서 '가늘다', 대변의 병리적 특징에서 ①번, ②번, ③번 항목을 제거한 결과 alpha 계수의 절대값이 높아졌다.

반면 배변 시간, 배변 후의 느낌에 대한 설문은 구성 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을 제거하더라도 alpha 값이 증가하는 경우가 없어 설문 구성의 일치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13. 설문 문항의 내적 일치도 평가

요인	설문 항목	항목제거후 알파값	Cronbach's alpha
대변 형태	변이 묶은 편	-0.7306	-0.6595
	변이 된 편	-0.5767	
	변이 흩어지는 편	-0.7499	
	변모양을 갖춘 편	-0.5714	
배변 시간	시간이 짧은 편	-0.5123	-0.6595
	시간이 긴 편	-0.3810	
배변 후의 느낌	뒤가 무직한 느낌	-0.5461	-0.6595
	시원한 편	-0.2648	
대변 굵기	굵다	-0.5569	-0.6595
	가늘다	-0.6888	
대변의 병리적 특징	① 대변이 무르거나 설사가 나면 건강 상태가 나빠진다.(찬 것, 기름진 것을 먹으면 심하다)	-0.8173	-0.6595
	② 대변이 굳어지면 건강상태가 나빠지며 변비가 생기면 속에서 열이 많이 난다. 이때 차라리 설사를 시키는 것이 편하다.	-0.6644	
	③ 대변이 보통이거나 약간 무른 편인데 기분이 나쁘거나 매운 것을 먹으면 설사가 나고 이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	-0.7719	
	④ 대변이 평소 무르거나 설사가 잘 나는 편이나, 설사 해도 몸이 차워지거나 건강의 급격한 악화는 없다.	-0.5344	
	⑤ 대변이 평소 무른 것이 된 것보다 좋고 굵기가 크면서 많이 나오면 건강이 좋다.	-0.6527	

IV. 考 察

李濟馬는 『東醫壽世保元』¹⁾과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²⁾에서 각 체질에서 평소 가지고 있는 생리·병리적 증상 즉 素證을 기술하고 있으며, 『東武遺稿』¹⁰⁾에서도 일부 설명되어 있다.

『東醫壽世保元』¹⁾ 四端論에서 肝肺가 氣液을 呼吸하는 門戶이며, 脾胃가 水穀을 出納하는 倉庫라고 하여(肺以呼 肝以吸 肝肺者 呼吸氣液之門戶也 脾以納 胃以出 脾胃者 出納水穀之府庫也¹⁾) 四象人 臟局의 역할을 요약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臟局 大小와 性情 偏急에 의한 氣의 변화를 더하여 四象人의 水穀代謝, 氣液代謝의 불균형 상태를 구성하게 된다. 소양인과 소음인은 水穀之氣의 出納과정에서 생긴 병증을 가지는데, 소양인은 大腸에서 水穀 陰寒之氣를 出함이 부족하며 胃中에 水穀 陽熱之氣를 納함이 성해지고, 소음인은 胃中에 水穀 陽熱之氣의 納함이 부족하며 大腸의 水穀 陰寒之氣를 出함이 성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四象人의 完實無病의 조건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소양인은 대변이 잘 통하면 건강한 상태이고, 소음인은 음식이 잘 소화되면 건강한 상태라고 하였다(太陽人 小便旺多則完實而無病 太陰人 汗液通暢 則完實而無病 少陽人 大便善通 則完實而無病 少陰人 飲食善化 則完實而無病¹⁾). 그러므로 소음인에게 설사가 없거나, 소양인의 대소변이 쾌할 때 그 중에서도 대변이 잘 통할 때는 병이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²⁾의 素證을 논한 病變 第五統에서는 태양인과 소양인은 대소변이 滑利하면 좋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대소변이 滑利하면 좋지 않다(太陽少陽 大小便滑利則 吉 太陰少陰 大小便滑利則 不吉²⁾)고 하여 陽人과 陰人을 비교 설명하였고, 소음인에서 설사는 급하고 重한 것이지만, 소양인에서는 오래도록 설사해도 오히려 가볍다(少陰

人有暴泄泄瀉過三日則 其病必重 少陽人 有久泄泄瀉雖月餘 其病輕也²⁾)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체질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음인의 대변이상은 表病에서 胃家實의 大便不通過 裏病에서 少陰證, 太陰證의 설사를 기술하고 있으며 대개 소음인의 설사는 회수가 많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중하다고 하고 소음인이 한 달 동안에 혹 2~3회 설사하거나 하루에 굳은 변을 서너 차례 보는 것은 輕한 病人이라 할 수 없다(凡少陰人泄瀉 日三度 重於一二度也 四五度 重於二三度也 而日四度泄瀉 則太重也 泄瀉一日 輕於二日也 二日輕於三四日也 而連三日 泄瀉 則太重也 少陰人 平人 一月間 或泄瀉二三次 則不可謂輕病人也 一日間 乾便三四度 則不可謂輕病人也¹⁾)라고 하여, 소음인의 설사나 대변이 잦은 것은 소음인의 원래 臟局大小에 의한 出放之氣의 과다에서 더욱 불균형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병의 예후가 좋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²⁾에서 소음인이 頭痛과 發熱하는 병은, 冷泄에 비하면 가벼운 증세라고 하여(少陰人 頭痛發熱病 病則病也 比之冷泄則輕症也²⁾) 소음인에서 설사는 重한 증상이라 할 수 있으나 소음인 병에서 간혹 설사를 하더라도 기침이 고요하면서도 웅장하면 대개는 輕한 상태라고 하여(少陰人病 間間泄瀉而咳靜雄壯則 其病非重症也 七分輕也²⁾) 예후를 설명하고 있다.

소양인의 경우에는 대변에 관한 언급이 타 체질에 비해 많은 편이다. 大便善通을 完實無病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表寒病에서 제시하고 있는 亡陰證은 설사를 대표 증후로 하였고, 裏熱病은 清陽이 상승하지 못하여 발병하며, 이 중 胸膈熱證은 裏陽이 상승하지 못하고 鬱滯되어 熱化된 것으로 大便不通過 주요 증상이 된다. 대변의 양상으로 그 병세를 평가하는데 소양인의 대변 첫머리가 燥하고 끝

이 滑하며 덩이가 크고 잘 나오는 것은 평상시에 병이 없는 사람의 것이고, 滑便을 많이 보되 1~2차 시원하게 滑泄을 많이 하고 그치는 것은 병이 있는 사람의 병이 완전하게 풀리는 대변이고, 1~2차 보통 滑便을 보는 것은 병이 있는 사람의 병세가 더하지 않는 대변이며, 혹 1주야 이상이 되어도 통하지 않거나 혹은 1주야 동안에 3, 4, 5차 조금씩 滑便이 나오는 것은 장차 변비가 될 징후이고 좋은 대변이 아니니 예방하는 것이 좋다(少陽人表裏病 結解 必觀於大便 而少陽人大便 頭燥尾滑 體大而疏通者 平時無病者之大便也 其次大便滑一二次快滑泄 廣多而止者 有病者之病快解之大便也 其次一二次尋常滑便者 有病者 病勢不加之大便也 其次或過一晝夜有餘不通 或一晝夜間三四五次小小滑利者 將澁之候也 非好便也 宜預防¹⁾)라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²⁾에서 소양인의 대변이 잘 안나가거나 무른 것은 병이지만, 하루 동안에 여러 번 대변보는 것은 나쁜 증상이 아니다(少陽人大便澁滑者病也 一日間屢次則 非惡症也²⁾)라고 하였다.

태음인의 경우 표병에서 胃脘寒證을 제시하면서 설사가 그치지 않으면 表病이 重한 것이라고 하였고(嘗治 太陰人 胃脘寒證 瘧病 有一太陰人 素有怔忡 無汗 氣短 結咳矣 忽焉 又添出一證 泄瀉 數十日不止 卽 表病之重證者也¹⁾), 裏病에서 燥熱病에 大便秘燥한 증상을 제시하고 있다(嘗治 太陰人 年五十近衰者 燥熱病 引飲 小便多 大便秘者 用 熱多寒少湯 用藥本二錢 加大黃一錢 二十貼 得效矣 後一月餘用他醫藥五貼 此人 更病 復用 熱多寒少湯 加藥本 大黃 五六十貼 用藥時間 其病 僅僅支撐 後終不免死 又嘗治 太陰人 年少者 燥熱病 用此方 三百貼 得支撐一周年 此病 亦不免死 此人 得病 一周年 或間 用他醫方 未知緣何故也 蓋 燥熱 至於飲一溲二而 病劇則 難治 凡 太陰人 大便秘燥 小便覺多而 引飲者 不可不早治豫

防¹⁾).

마지막으로 태양인의 경우 表病에서는 언급이 없었으며 裏病에서는 反胃症에서 대변이 秘少하여 염소똥 같은 것은 難治(亦曰 反胃 大便秘少 若羊屎然 大便 如羊屎者 難治¹⁾)라 하였으며, 대변의 양상으로는 첫째로 滑한 것이 좋고, 둘째로 덩어리가 굵고 많은 것이 좋다(太陽人 大便 一則 宜滑也 二則 宜體大而多也¹⁾)라고 하였다. 또한 만약 腹痛, 腸鳴, 泄瀉, 痢疾 등의 증이 있다면 小腸 裏氣가 충실한 것이니, 그 병은 치료하기가 쉽고 그 사람도 역시 완전히 건강할 것이다(太陽人 若有腹痛 腸鳴 泄瀉 痢疾之證則 小腸裡氣 充實也 其病易治 其人 亦完健¹⁾)라고 하였다.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²⁾에서 태양인의 大便不通은 비록 여유있는 병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험한 병증은 아니다(少陽之冷滯 少陰之燥渴 太陽之大便不通 太陰之小便秘澁 雖非歇證 終非危證²⁾)라고 하였고, 또 태양인이 병이 들어 않는 중에 가슴이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면 그 병이 비록 危重하더라도 끝에는 좋아질 것이다(太陽人病中 胸痛利泄則 其病雖重 終當效也²⁾)고 예후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문헌에서 기술한 내용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문항을 중심으로 한 설문지 방법을 통해 체질별 평소 대변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주로 체질진단의 방법론으로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¹¹⁻¹⁷⁾,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체질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체질진단을 시행한 대상자들에게 작성하게 하여 각 체질에 따른 대변의 평소 양상을 알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그 내용을 분류하면 대변의 형태, 배변시간, 배변후의 느낌, 대변의 굵기 및 대변의 병리적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변의 형태에서는 '변이 묽은 편', '변이 된 편', '변모양을 갖춘 편'의 문항에서

는 체질별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이 흠어지는 편'의 문항에서 태음인은 20.3%, 소양인은 18.4%가 응답한 반면 소음인은 9.9%만이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변모양을 갖춘 편'의 문항에서 볼때 소음인은 23.8%, 소양인은 20.0%가 응답한 반면 태음인은 13.5%만이 응답하여 종합하여 보면 소음인은 흠어지는 변은 적고 변모양을 갖춘 변을 보는데 반해, 태음인은 변이 흠어지는 경우가 많고, 변모양을 갖추어서 보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체질별로 '변이 흠어지는 편'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p값이 0.015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체질간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다중비교를 해 본 결과(즉, 동질성 chi-square 검사를 해 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05, 소양인과 소음인은 p 값이 0.023으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6). 태음인과 소양인은 '변이 흠어지는 편'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태음인과 다른 체질과의 차이도 없었으나 태음인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향후 관찰치의 수를 늘려서 좀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배변시간에서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7).

셋째, 배변 후의 느낌에서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해 '뒤가 무직한 느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8). 태음인은 57.7%가 변을 보고 나서 '시원한 편'이라고 하였으나, 소음인은 67.1%, 소양인은 66.7%가 '시원한 편'이라

고 응답하여 태음인이 배변 후의 느낌이 타체질에 비해 좋지 않았다.

넷째, 대변의 굵기에서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해 대변이 '가늘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9).

위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해 대변이 흠어지거나, 배변시간이 길거나, 배변 후에 시원치 않고, 대변의 굵기도 가는 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대변의 병리적 특징에서는 5개의 문항을 통해 정리하였다. 체질별로 대변의 병리적 특징에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③번 문항(대변이 보통이거나 약간 무른 편인데 기분이 나쁘거나 매운 것을 먹으면 설사가 나고 이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의 p 값이 0.038, ⑤번 문항(대변이 평소 무른 것이 된 것보다 좋고 굵기가 굵고 크면서 많이 나오면 건강이 좋다.)이 0.025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표 10), 각 체질간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③번 문항의 답변을 다중비교를 해 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의 p 값이 0.007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1). ⑤번 문항의 답변을 다중비교를 해 본 결과, 태음인과 소음인의 p 값이 0.011로써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2).

대변의 병리적 특징을 묻는 5개의 문항은 여러 가지 사실을 동시에 묻는 문항으로 답변하기에 좀 변수가 많은 문항이었던 것 같다. 한 문항에서 묻고 있는 한가지는 그렇지만 다른 내용은 그렇지 않을 때 응답해야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을 듯하다. 설문지 문항은 내용이 명료하고 분명한 한가지 사실만을 묻는 것이 좋은데, 이 문항들은 설문지 문항으로는 산만하고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설문지에서 중복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을 제거하고자 설문지를 신뢰도를 측정하고,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성의 측정방법으로는 test-retest reliability(재측정 신뢰도), split-half reliability(半分 신뢰도), item-total correlation(문항분석), Cronbach's alpha, alternative reliability(동등척도 신뢰도), inter-rater reliability(평가자간 신뢰도) 등이 있다¹⁸⁾.

이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뢰성 계수의 하나는 바로 Cronbach's alpha이다¹⁹⁾. 이것은 하나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문항을 가지고 가능한 모든 split-half reliability를 구하고 이들의 평균치를 산출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항목들의 신뢰도까지 평가할 수 있다.

문항 전체 수준인 경우, 알파계수가 0.5 이상, 개별 문항 수준인 경우 0.9 이상 정도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신뢰도가 이보다 낮은 경우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측정항목의 모호함을 제거하거나 측정항목 수를 늘리거나 사전에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항목을 이용하거나 척도점을 조정하기도 한다.

본 설문지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여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는데, 설문지의 alpha 값이 -0.6595였고, 구성 설문항목 열다섯 문항 중 대변 형태에서 '변이 묶은 편', '변이 흩어지는 편', 대변 굵기에서 '가늘다', 대변의 병리적 특징에서 ①번, ②번, ③번 항목을 제거한 결과 각각 alpha 계수의 절대값이 높아졌다. 따라서 위의 여섯 항목은 전체 설문에서 중복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체질별 평소 대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자

가 건강한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 즉 대상자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건강한 상태의 평소 증상이 아니라 어떤 병이 있는 상태로 인해 평소와 다른 素證 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려면 평소상태와 함께 현재 주소증과 관련하여 素證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문항의 추가가 필요할 듯하다.

둘째, 체질의 특성상 태양인의 수가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정도로 다른 체질에 비해 아주 적었다. 태양인의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도록 관찰치를 늘릴 필요가 있었다.

셋째, 대변의 병리적 특징을 묻는 문항들에서 한 항목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묻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체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체질적 성향을 원문에 충실하게 반영한 문항이었으나 설문지 문항으로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자의 시각에서 만든 설문지보다는 대상자가 작성하기에 간단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체질별 차이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論

2002년 3월 14일부터 9월 5일까지 동국대학교 분당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내원하여 사상인 체질에 따른 한약을 20첩 이상 복용한 외래환자 중 설문지를 작성한 504명을 대상으로 대변의 양상을 묻는 문항의 설문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체질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체질에 따른 대변의 형태를 비교한 결

과, '변이 묶은 편', '변이 된 편', '변모양을 갖춘 편'의 문항에서는 체질별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이 풀어지는 편'의 문항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이 소음인에 비해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통계적으로 체질간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2. 체질에 따른 배변시간을 비교한 결과 소음인이 태음인과 소양인에 비해 '시간이 짧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3. 체질에 따른 배변 후의 느낌을 비교한 결과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해 '뒤가 무직한 느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4. 체질에 따른 대변 굵기를 비교한 결과, 태음인이 소양인과 소음인에 비해 대변이 '가늘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5. 체질에 따른 대변의 병리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 '대변이 보통이거나 약간 무른 편인데 기분이 나쁘거나 매운 것을 먹으면 설사가 나고 이때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라는 문항에서는 소음인이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태음인은 응답한 경우가 적었으며($p < 0.05$), '대변이 평소 무른 것이 된 것보다 좋고 굵기가 굵고 크면서 많이 나오면 건강이 좋다.'라는 문항에서는 태음인이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소양인과 소음인은 응답한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參 考 文 獻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개정판, 서울: 여강출판사, 2002: 36, 81, 102-4, 110, 164-5, 221, 232, 254, 256, 260, 281.
2. 金九翊(魯山) 筆, 李濟馬 原著,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筆寫本, 1951: 50-60.
3. 宋一炳, 四象人의 體質病證藥理에 관한 考察. 사상학회지 1998: 10(2): 1-14.
4. 李廷燦, 金達來, 大便을 中心으로 한 四象 體質 病證에 對한 考察. 사상학회지 1992: 4(1): 171-7.
5. 金善豪, 金達來, 小便 辨證의 四象醫學의 觀點과 傷寒論의 觀點에 對한 比較 考察. 사상학회지 1992: 4(1): 179-86.
6. 서웅, 송정모, 發汗에 對한 四象醫學의 考察.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 12(2): 56-66.
7. 河萬秀, 汗을 中心으로 한 體質病證에 對한 考察. 사상학회지 1993: 5(1): 125-31.
8. 朴星鎮, 金達來, 四象醫學에서의 睡眠障 碍에 關한 文獻的 考察. 사상학회지 1995: 7(1): 127-34.
9. 李敬愛, 朴性植, 李源哲, 四象醫學의 汗 · 大便 · 小便에 對한 考察. 大韓韓方內科 學會誌 1996: 17(1): 123-38.
10. 李濟馬, 國譯 韓醫學大系 15 - 東武遺 稿. 서울: 海東醫學社, 1999.
11.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辨證에 관한 小 考. 대한한학회지 1985: 6(1): 40-7.
12. 金善豪,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 査(QSCC II)의 標準化 研究. 사상체질 의학회지 1996: 8(1): 186-246.
13. 李廷燦, 高炳熙, 宋一炳, 四象體質分類檢 査(QSCC II)의 妥當化 研究. 사상학회 지 1996: 8(1): 247-94.
14. 장현록,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四象體

- 質分類檢査紙(QSCC)Ⅱ에 의한 太陰人 診斷의 妥當性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1): 45-50.
15. 박은경, 박성식. 設問紙 問項에서의 體質別 應答差異 比較分析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 12(1): 157-72.
16. 김태균, 김중원. 새로운 사상체질 설문지의 임상적 활용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 12(1): 173-85.
17. 박은경, 이영섭, 박성식. 의사결정나무법을 이용한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 13(2): 144-55.
18. 강병서, 김계수. 통계분석을 위한 SPSSWIN Easy. 초판, 서울: 법문사. 1998: 227-8.
19. 김지용, 정해관, 김두희. 누적외상성장해 증상에 대한 설문지 및 전산화 자가입력 설문지의 비교. 동국의학 1998: 5: 84-96.